

용인상의

YONGIN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용인상공회의소 소식지 <http://yongincci.korcham.net>

2025
여름호 Vol. 26



용인상공회의소

New!

크런치팝
스윗하니맛
더 보러가기



달콤한 시즈닝을 솔솔 뿌린 팝콘치킨

크런치팝

Chicken pop! pop!

스윗하니맛



시즈닝을 뿌려
달콤하고 바삭한!



마니커에프앤지 요리해 행복을 담다 | HAPPINESS IN COOKING

용인상의

상공인을 대표하는 상공저널 | YONGIN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2025 여름호 Vol.26 | 용인상공회의소 소식지

CONTENTS



04



06



12



24

신성태 대표이사
(주)베오베



발행일 2025년 8월 20일
발행처 용인상공회의소
발행인 이태열
주소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81(역북동)
전화 031.332.9812
기획·편집 용인상공회의소

04 상의 동정

제11회 용인상공회의소 회장배 친선 골프대회 성료
이태열 회장, 제48회 대한상의 하계포럼 참석
제14기 용인 경영인아카데미 수료식
용인 경영인아카데미 총동문 친선 체육대회 성료
제157~158회 명사초청 조찬세미나
용인상공회의소, 2025 노사민정 공동선언 협약 체결
용인상공회의소, 중소기업 대상「공동 안전관리자 지원사업」본격 시행

14 상의 단신

이태열 회장,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 6월 월례회의 참석
용인시 제80주년 광복절 경축회
용인 경영인아카데미 총동문회 임시총회 개최
용인상공회의소 여성기업인협의회,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견학...스마트 제조 현장 체험
용인상공회의소 여성기업인협의회 7월 월례회의
용인상공회의소 산하 협의회

16 회원사 소식

신규회원을 소개합니다
회원사 창립기념일을 축하합니다.

22 용인지역뉴스

용인특례시, 세종포천고속도로 (가칭)동용인IC 설치 위한 도로연결허가 신청
용인시민프로축구단, 프로연맹 실질적 창단 승인

24 회원사 탐방

프리미엄 카페 문화를 선도하는 전문 식품유통 기업
(주)베오베 신성태 대표이사

28 회원사 동정

(주)디와이종합건설 / (주)바로스 / (주)소울 / (주)솔리렉스 /
(주)바우피엔씨 / 상공회의소 온라인복지몰 / 웰팩마케팅
조합법인 / (주)조인엔터프라이즈 / 지지소파 / 한국에머슨(주)

38 BSI 보고서

수출회복세에도 관세 영향으로 상승폭 제한

42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YCCI
Member
Story

YCCI
Biz Story

제11회 용인상공회의소 회장배 친선 골프대회 성료



5월 12일(월), 용인 골드CC에서 ‘제11회 용인상공회의소 회장배 친선 골프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에는 총 96명의 지역 기업인들이 24개 팀을 구성해 진행했으며, 용인 지역 기업 간 교류와 협업을 증진하기 위한 친목의 장으로 마련됐다.

대회는 11시 30분 오픈행사로 시작되었다. 참가자들은 단체사진을 촬영하며 대회의 시작을 알렸고, 이태열 용인상공회의소 회장의 개회선언과 함께 시타행사가 이어졌다. 이후 12시 11분, 티샷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경기에 돌입했다.

스코어는 신페리오 방식으로 집계되었으며, 치열한 승부 끝에 김양순 용인나무시장 대표가 우승의 영예를 차지했다. 시상식에서는 전년도 우승자인 김경태 우리용인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우승자에게 우승자켓을 전달하며 훈훈한 전통의 바통을 이어갔다.

이후 만찬행사가 이어졌으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참가자들을 격려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인들의 역할을 치하했다. 이날 사회는 배우 안재모가 맡아 재치 있는 진행으로 행사에 활기를 더했다.

시상식 후에는 푸짐한 경품행사도 마련되었다. 용인상공회의소 회원사 49곳에서 후원한 자사 우수제품과 다양한 경품들이 제공되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회원사들이 직접 준비한 물품과 현금 후원으로 풍성하게 꾸며진 이번 행사는 지역 기업인의 결속을 다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이태열 회장은 폐회사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이 행사는 기업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상호협력을 도모하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 잡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태열 회장, 제48회 대한상의 하계포럼 참석



이태열 용인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경주 라한셀렉트 호텔에서 개최된 ‘제48회 대한상공회의소 하계포럼’에 참석해 용인지역을 대표하는 경제인으로서 활발한 교류와 논의에 함께했다. 이번 하계포럼은 APEC 정상회의 100일을 앞두고 열린 만큼, 국내 최대 규모의 경제계 포럼답게 전국의 상공회의소 회장단과 주요 기업인,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민관 협력방안과 미래산업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 회장도 각계각층의 참석자들과 용인지역 기업 현안과 비전을 공유하며, 용인지역 경제계의 역할과 위상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개회식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새정부 국정 운영방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김 총리는 연설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경제계와 적극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

고 말했다. 이번 연설은 김 총리가 취임 후 경제계를 대상으로 한 첫 공식 행보로, 민관 협력의 새출발을 알리는 상징적인 순간이 되었다. 포럼 3일차 저녁에는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이 한자리에 모인 만찬행사가 열려, 대장정의 마지막을 장식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상의 간 연대 강화와 향후 APEC CEO Summit 성공 개최를 위한 협력 의지를 다지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이태열 회장도 이 자리에 참석해 지역상의 회장들과 긴밀한 교류를 이어갔으며,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중앙 경제계에 전달하는 데 힘썼다.

이번 포럼은 ‘신라의 지혜, 미래의 길’이라는 슬로건처럼, 전통과 혁신을 아우르며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 용인상공회의소는 앞으로도 지역 기업인의 성장을 돕고, 전국상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더 큰 협력과 발전을 이끌어갈 계획이다.

제14기 용인 경영인아카데미 수료식



용인상공회의소(회장 이태열)와 현대경제연구원(회장 이태열)이 공동 주최한 ‘제14기 용인 경영인아카데미’ 수료식이 지난 7월 10일 용인상공회의소 세미나실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14기 경영인아카데미는 4월 17일부터 12주간 진행되었으며 인문, 경제, 혁신 리더십, 디지털 전환 전략 등 현재 기업들이 직면한 핵심 과제들을 중심으로 이론과 실재를 겸비한 실질적인 전문 지식과 인사이트를 제공하여 경영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수료식에는 이태열 용인상공회의소 회장 외 김철 아카데미 총동문회장, 안정제 초대 회장, 이정란 여성기업인협의회 회장, 현대경제연구원 김진우 실장 등 선배기수를 포함하여 약 7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이태열 회장은 “대내외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증대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경영인 여러분의 열정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과정을 통해 얻은 전문 지식과 경험이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리라 믿는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현대경제연구원 김진우 실장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경영인들의 전략적 의사결정과 끊임없는 혁신적 사고가 필수적이며, 아카데미를 통해 얻은 비즈니스 역량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용인 지역 경제를 선도하는 주역으로 우뚝 서기를 바란다”며 응원하였다.

용인상공회의소 경영인아카데미는 용인지역 경영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운영되는 최고경영자 과정이다. 차별화된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과 인적 네트워크 형성 기회를 제공하여 미래 비즈니스 리더를 양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경영자들 간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용인 지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

용인 경영인아카데미 총동문 친선 체육대회 성료



지난 6월 11일(토), 싱그러운 초여름의 기운이 완연한 가운데 용인상공회의소 경영인아카데미 총동문회(회장 김철) 친선 체육대회가 동문들의 뜨거운 열정 속에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약 120명의 원우가 참석하여 동문 간의 화합과 유대를 강화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역대 총동문회장들을 비롯해 이태열 용인상공회의소 회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상식 국회의원 등 주요 내빈이 참석하여 대회 축사를 통해 동문 상호 간의 굳건한 결속과 화합의 정신을 독려하며 참석자들에게 깊은 격려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김철 총동문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이 자리가 동문 간 변함없는 우정을 다지고 든든한 버팀목임을 확인하는 화합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남은 임기 동안 총동문회를 지역사회 의 리더로 세우고 활발한 소통과 다양한 사업

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축사에 이어서 모범시민으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취약계층 후원에 기여한 동문에게 수여하는 용인동부경찰서 표창 수여식을 거행하여 행사에 특별한 의미를 더하였다.

본격적인 체육대회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1부에서는 청백팀으로 나뉘어 명랑운동회 형태로 유쾌한 경쟁이 펼쳐졌고, 이어지는 2부에서는 각 기수의 명예를 건 기수별 대항전이 박진감 넘치게 진행되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기수와 직위를 넘어 격 없는 소통과 유쾌한 경쟁을 즐기며 잠시 바쁜 경영 현장에서 벗어나 활력을 되찾고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각 기수 동문들의 자발적인 후원과 찬조로, 이번 행사는 모두가 함께한 축제로 마무리되었다.

제157회
명사초청 초찬세미나진정한 리더십은
커뮤니케이션부터 다르다

정동일_연세대학교 교수

일시: 2025.06.11.(수)
장소: 용인상공회의소 세미나실

용인상공회의소(회장 이태열)는 지난 6월 11일(수), CEO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교수이자 국내 리더십 분야 최고의 강연자인 정동일 연세대학교 교수를 초청하여 '진정한 리더십은 커뮤니케이션부터 다르다'는 주제로 제157회 명사 초청 초찬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변화하는 시대에 기업 리더들이 갖춰야 할 핵심 역량인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리더십 역량 증진을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이날 초찬 세미나에는 용인지역 주요 기업의 최고경영자 약 90여 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학구열을 보였다. 참석자들은 정동일 교수의 강연에 귀 기울이며 리더십 함양에 대한 열의를 드러냈고, 강연 이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평소 고민했던 리더십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며 상호간의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정동일 교수는 강연에서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리더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조직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역설하며, 효과적인 소통 전략과 팀원들과의 신뢰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일방적인 지시가 아닌 경청과 공감을 바탕으로 한 리더십이야말로 조직의 성장과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풍부한 사례와 심도 깊은 분석을 토대로 설득력 있게 제시하여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처럼 리더십의 본질과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강조한 정동일 교수는 마지막으로 기업인들에게 '진정한 리더십은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열린 소통에서 시작된다'는 깊이 있는 조언을 전하며 이번 강연이 진정한 리더십의 본질을 깊이 통찰하고, 나아가 향후 조직 운영에 귀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하며 강의를 마쳤다.

제158회
명사초청 초찬세미나예술,
여행을 떠나다 <파리>

전원경_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

일시: 2025.07.09.(수)
장소: 용인상공회의소 세미나실

용인상공회의소(회장 이태열)는 지난 7월 9일(수), 탁월한 인문학적 식견을 겸비한 예술 전문 작가인 전원경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를 초청하여 '예술, 여행을 떠나다 <파리>'라는 주제로 제158회 명사 초청 초찬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경영 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기업인들이 일상의 번잡함 속에서 잠시나마 예술을 통해 문화적 소양을 함양하고, 나아가 혁신적인 사고와 새로운 영감을 얻을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이날 강연에서 전원경 교수는 단순한 파리 관광 명소 소개를 넘어, 파리에 뿌리를 내리고 예술혼을 불태웠던 빈센트 반 고흐, 파블로 피카소, 클로드 모네 등 세계적인 거장들의 삶과 그들의 작품에 깃든 파리의 진정한 예술적 가

치를 심층적으로 다뤘다. 전 교수는 풍부한 시각 자료와 흡인력 있는 설명을 통해 참석자들을 마치 실제 파리의 거리와 미술관을 거니는 듯한 생생한 예술 여행으로 이끌었다.

특히, 예술 작품이 탄생한 시대적 배경과 예술가들의 삶과 고뇌를 쉽고 흥미롭게 풀어내, 청중에게 시대의 변화상과 예술가들의 진솔한 감정을 생생하게 전달하여 예술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인식을 심어주었다.

전원경 교수는 마지막으로 "예술은 더 이상 여가의 영역에만 머물지 않고, 급변하는 시대 속 혁신과 창의성의 원천이 된다."며 "이번 강연을 통해 얻은 문화적 소양과 새로운 관점을 실제 경영 현장에 적극적으로 접목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어 나갈 것"을 당부하며 강의를 마쳤다.

용인상공회의소, 2025 노사민정 공동선언 협약 체결



이태열 용인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6월 9일 용인시청에서 열린 ‘2025 용인시 노사민정 공동선언 협약식’에 참석해, 지역경제를 대표하는 경제인으로서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과 공정한 기업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의 뜻을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을 비롯해 이태열 용인상공회의소 회장, 유진선 용인시의회 의장, 오기환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 이상원 한국노총 용인지역지부 의장 등 노·사·민·정 각 주체 대표와 함께, 사측 대표 6명이 참석해 공동선언에 서명했다.

공동선언문에는 △근로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 △생산성·서비스 품질 향상 △노사 간 신뢰와 협력 기반의 상생 문화 정착 △

법 준수와 공정한 기업문화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용자 측은 특히 근로자의 권익을 존중하며, 책임 있는 경영 실천에 힘쓸 것을 명확히 했다.

이 자리에서 이태열 회장은 “기업이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의 신뢰 구축, 공정한 노동 환경,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필수”라며, “용인상공회의소도 지역 노사민정 간 유기적인 연대를 통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노동과 경영, 시민, 행정이 함께 머리를 맞댄 상생의 실천 선언으로, 용인시가 더욱 신뢰받는 산업도시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용인상공회의소, 중소기업 대상 『공동 안전관리자 지원사업』 본격 시행

정부 지원 연계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위한 월 1회 이상 무료 컨설팅 제공
2025년 12월까지 사업운영, 체계적 중대재해 예방 기대!

정부는 2024년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동 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안전관리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사업은 용인상공회의소에서 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 회원사에 월 1회 이상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컨설팅을 통해 참여 기업들은 단계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용인상공회의소는 많은 회원사를 위하여 2025년 해당 사업에 신청하고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용인상공회의소는 지난 3월 산업안전기사 1명을 채용, 4월부터 12개 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총 15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이 중 1개 기업((주)오토콘시스템)은 체계

구축을 완료해 컨설팅을 종료했으며, 나머지 14개 기업은 월 1~2회 정기 방문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다. 주요 참여 기업으로는 (주)소울, 대안화학(주), (주)인덕엔지니어링, (주)대흥엠앤티, 경기포장(주), (주)바우피엔씨, 동도이아이(주), (주)누비지오, (주)우노가구, (주)에코윈드, HIT(주), 동산콘크리트산업(주)가 진행중이며, 7월에는 커피 제조기업 (주)베오베, 8월부터 산업용 비경화 고무 제품 제조기업인 (주)크라이온고무가 새롭게 참여하였다. 현재 진행중인 기업들의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용인상공회의소는 『공동 안전관리자 지원사업』으로 더 많은 기업이 지원 받아 기업의 안전과 번영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

본 사업은 2025년 12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2026년부터는 정부의 사업 지속 여부 결정에 따라 향후 계획이 확정될 예정이다.

문의: 용인상공회의소 공공사업부(031-8020-9578)

2025년도 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 안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니,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컨설팅 대상 비용 무료	제조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49인 사업장(50~299인 사업장 신청 가능) * 운수·창고·통신업, 광업, 임업, 기타의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도소매및소비자용품수리업에 한함) 건설업종 종합건설업(시평역 순위 200위(토건기준) 초과) 또는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 기업 *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포함
-------------------------------	---

이태열 회장,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 6월 월례회의 참석

이태열 용인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6월 12일, 이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이하 경상연) 6월 월례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에 앞서 진행된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과의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상호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월례회의에서는 대한상의 하계포럼 참석 계획과 경상연 주관 세미나 운영 방향 등을 논의하며, 도내 상의 간 소통과 공동 대응 필요성에 공감했다.

회의를 마친 후 참석자들은 SK하이닉스 이천 캠퍼스를 방문, HBM(고대역폭 메모리) 제조 공정을 견학하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 경



쟁력을 직접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 회장 역시 첨단 반도체 기술의 산업 파급력과 지역경제 연계 가능성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용인상공회의소는 앞으로도 도내 상공회의소 및 유관기관과의 연대를 강화해, 지역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실질적 협력 모델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용인특례시 제80주년 광복절 경축회

이태열 용인상공회의소 회장은 8월 15일(금), 용인시청 3층 에이스홀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경축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의장을 비롯해 독립유공자 후손 등 300여 명이 함께 자리해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용인 경영인아카데미 총동문회 임시총회 개최



지난 7월 22일 용인상공회의소 경영인아카데미 총동문회는 회원 간의 유대 강화 및 동문회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총회에는 김철 총동문회장, 나준수 수석부회장, 박길숙 용경회 회장을 비롯하여 각 기수 회장단 및 사무국장이 참석하였다.

김철 회장은 “임시총회가 단순한 모임을 넘어, 우리 동문회가 한 단계 더 크게 도약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동문 간의 긴밀한 협력과 활발한 소통을 강화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동문회 역량 강화와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고견을 모아 동문회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이날 총회는 주요 안건으로 총동문 행사와 관련된 보고사항과 의결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동문회 활동의 내실을 다지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심도 깊은 토론이 이어졌다. 동문 기업 간의 네트워크 활성화 및 협력 사업 발굴, 그리고 지역 사회 공헌 활동 확대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번 임시총회를 계기로 용인상공회의소 경영인아카데미 총동문회는 단순한 친목 단체를 넘어 지역 발전의 구심점으로서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였다. 향후 실질적인 비즈니스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다방면에서 유기적인 협업을 확대하여 용인 지역의 경제 발전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용인상공회의소 여성기업인협의회,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견학...스마트 제조 현장 체험

용인상공회의소 여성기업인협의회(회장 이정란 (주)우노가구 대표이사)는 지난 6월 9일 선진 기업 견학의 일환으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을 방문했다. 1996년에 준공된 아산공장은 약 4천 명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으며, 축구장 243개에 달하는 대규모 부지에서 연간 30만 대의 완성차를 생산하고 있는 세계적 수준의 제조공장으로, 해당 공장에서 생산되는 대표적인 차종에는 전국민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세단인 쏘나타와 그랜저가 있다.

이 날은 협의회 회원 23명이 참석해 현대자동차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향한 비전과 생산공장의 현황이 담긴 영상을 시청하고 차체 프레스 및 조립·용접 공정, 차량 부품 조립 등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세밀히 둘러보았으며, 특히 산



업용 로봇이 최대한 활용된 높은 수준의 공장 자동화를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다.

견학에 참가한 회원들은 “코일 형태로 공급된 철판이 절단·절곡 과정을 거쳐 하나의 어엿한 자동차로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눈앞에서 지켜보니 놀라웠다”며 뜻깊고 유익한 현장견학을 체험하였다.

용인상공회의소 여성기업인협의회 7월 월례회의

용인상공회의소 여성기업인협의회(회장 이정란 (주)우노가구 대표이사)는 지난 7월 14일 오후 5시부터 정기 월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월례회의에서는 회원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해외 워크숍 추진의 건,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재능기부 추진의 건 등을 상정하여 향후 활동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정란 회장은 월례회의 자리를 빌어 “이번 워크숍을 통해 회원간 결속이 더욱 끈끈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또한 앞으로도 나눔 문화 확산에 여성 기업인들이 적극 앞장섬으로써, 따뜻한 영향력을 통해 모두에게 귀감이 되는 기업인상을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전했다.

용인상공회의소 산하 협의회

용 상 회

용상회(회장 양성범(영문의료재단 다보스병원 이사장))는 1992년 용인지역 기업인의 친목 도모와 교류를 위한 모임으로 발족하여 현재 32명의 기업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월 세 번째 수요일 신원CC에서 모임을 가진다.

기업발전연구회

기업발전연구회(회장 이진호((주)동아일렉콤 상무))는 용인상공회의소 회원 기업의 인사·총무 부서장으로 구성된 협의회로 매월 다양한 인사·노무 주제로 월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협의회 회원간 친목도모를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였으며, 7월 정기월례회의는 [새정부 노동정책 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각사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여성기업인협의회

여성기업인협의회(회장 이정란(주)우노가구 대표이사))는 용인상공회의소 산하 여성기업인들로 구성된 단체로 용인지역 여성기업인의 권익도모를 위해 월례회, 세미나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2025년 상반기는 월례회의 개최 및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을 시찰하였다.

경영인아카데미 총동문회

용인상공회의소 경영인아카데미 수료자로 구성된 총동문회(회장 김철((주)한국물류서비스 회장))는 440여 명의 경영인아카데미 수료자간 네트워크 형성과 이업종 교류에 힘쓰고 있다. 지난 7월 임시총회를 통해 상반기 사업결산 및 실적에 대해 검토하였고 하반기 신규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협의회 담당부서 안내

협의회	담당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용상회	기획관리본부	허성은 과장 (031-8020-9573)
여성기업인협의회	회원지원본부	송미숙 본부장 (031-8020-9561)
기업발전연구회	회원지원본부	우혜진 주임 (031-8020-9574)
경영인아카데미	경영지원본부	이동훈 주임 (031-8020-9565)

“신규회원을 소개합니다”



웬떡마을영농조합법인

제조업 / 떡 또는 빵류

웬떡마을영농조합법인은 40여 년간 우리 농산물로 전통 떡을 만들며 한결같이 맛과 건강을 지켜온 기업입니다. 단순한 떡집을 넘어, 전통을 계승하는 사명감과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 식품업계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규봉 대표는 고조리서를 탐구하며 전통떡을 복원하였고, 그 결과 ‘용인속구리단자’와 같은 지역 특산품을 탄생시키는 뿌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삼성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을 통해 웬떡마을의 혁신을 이루고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 시스템을 통해 대규모 유통 채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대량 생산 역량을 확보했습니다.

이규봉 대표는 ‘5천년 이어져 온 떡 문화가 후대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가장 큰 소망으로 밝힙니다. 웬떡마을은 전통을 존중하고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으로 천 년을 이어갈 떡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 주소 : <https://wennteok.com> • 대표번호 : 031-333-2777



(주)미래세이프티

도소매업 / 건설안전용품, 작업복

2002년에 설립된 (주)미래세이프티는 검증된 건설 안전용품과 지벤 작업복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20여 년 건설업 경험을 바탕으로 품질 관리된 안전용품 위주로 현장별 맞춤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외에도 안전모와 안전화, 안전용품을 다양하게 구비하여 매장에 들려주시는 고객분들에게도 편안하게 선택하실 수 있도록 깔끔하게 진열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업복은 ‘지벤’ 브랜드사 제품으로 높은 퀄리티와 안전성, 편의성, 스타일까지 갖춘 고급 워크웨어로 디테일 부분에서 작업환경마다 편안하게 착용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소재와 디자인의 작업복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회사 단체복에 필수로 들어가는 컴퓨터 자수/열전사 작업이 모두 가능합니다. 작업복 담당자님들과의 시안 확인, 수정 작업을 꼼꼼히 확인하고 소통하며 만족도 높은 작업복으로 제품을 납품 드리고 있습니다. 고객분들께서 편안하게 소통이 가능하고 꾸준히 좋은 품질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언제나 노력하는 (주)미래세이프티가 되겠습니다.

• 홈페이지 주소 : www.i-mr.co.kr • 대표번호 : 031-333-5535



(주)엑셉트커피

제조업 / 커피가공업

(주)엑셉트커피는 커피 로스팅과 원두 납품을 중심으로 카페 컨설팅, 바리스타 교육, 장비 설치 및 유지보수까지 아우르는 종합 커피 솔루션 기업입니다. 특히 오피스 커피 서비스를 통해 사무실과 기업 복지 환경에 맞는 맞춤형 커피 솔루션을 제공하며, 최적화된 머신 설치와 원두 납품으로 기업 복지의 디테일을 완성합니다. 스마트공장 자동화 설비와 HACCP-ISO 인증을 기반으로 고품질 커피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전국 다양한 고객사와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 주요분야 : 카페 컨설팅 / 원두 납품 / 커피 교육 / 사무실 커피 납품 및 관리 서비스

• 홈페이지 주소 : <https://acceptcoffee.co.kr> • 대표번호 : 031-333-4157



이윤정세무회계

공인회계사업 / 회계감사, 세무서비스

저희는 고객과의 신뢰를 중요시 합니다. 두터운 신용이 있어야 고객 일을 나의 일처럼 여기고 일을 할테니 말입니다. 나의 일처럼 일하면 결과가 좋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단순한 세무, 회계 대리 업무 수행뿐 아니라 고객 사업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것을 개선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 대표번호 : 031-548-1300

- 회계법인 출신 20년 경력 회계사/세무사
- 중소기업 회계감사 다수
- 지자체 사업비, 국비 검증/정산 다수
- 건설업(면허유지 자본금 검토) 및 시행사(진행율 적용), 도소매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기장대리 다수



(주)대흥이엔티

도매,제조업/ 수지가공업

(주)대흥이엔티는 2021년에 설립된 회사로, 가연성폐기물을 이용하여 고품질 연료(SRF-Solid Refuse Fuel)를 제조하여 나오는 열원으로 다양한 산업시설(발전소, 시멘트, 제지회사 등)에 대체연료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100%재활용이 가능한 시스템으로써 그동안 폐기되었던 폐기물을 친환경 우수 자원으로 Good Recycle 하는 것에 목적을 둔 ‘친환경 자원 리사이클’ 사업입니다. 많은 자원이 폐기물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자원 재생 및 재활용으로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홈페이지 주소 : <https://wennteok.com> • 대표번호 : 031-333-2777



7~9월

회사명	대표자	주요생산품목	설립일자
가양산업(주)	이약우	전자통신용와이어, 케이블 제조업	7월1일
경기포장(주)	정경훈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	7월1일
광명제어	이승재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	7월1일
국민레미콘(주)	배조웅	레미콘제조업	7월1일
(주)동일기전	김종규	통신장비 및 부품 도매업	7월1일
(주)리마켓	이재구	사무용가구 도매업	7월1일
삼부콘테이너	김양임	콘테이너제작, 콘테이너 도소매업	7월1일
삼성에스디아이(주)	최윤희	축전지 제조업	7월1일
선정세무회계사무소	최선정	세무사업	7월1일
(주)씨스쿱	서병찬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7월1일
용인클린워터(주)	이건상	하수처리업	7월1일
(주)유진퍼니처	유인환	목재가구 제조업	7월1일
이윤정 세무회계	이윤정	세무사업	7월1일
이희용세무회계사무소	이희용	세무사업	7월1일
(주)장업시스템	이희종/서정우	화장술 제조업	7월1일
제일식품	이미숙	기타 비가공 식품 도매업	7월1일
(주)에버로얄윙인호텔	전윤서	호텔업	7월2일
(주)두원메디텍	이경옥/서효석	일회용주사기, 수액세트, 수혈수액세트 제조업	7월4일
(주)에이치앤아비즈	김윤희	CSL 소재기반 신틸레이터, 검출기, 시스템 제조업	7월5일
고등기술연구원연구조합	김선용	학술용역 연구개발	7월7일
(주)계령	김남수	일반전기 공사업	7월9일
(주)세민기공	오세열	도료, 몰탈, 기계 제조업	7월9일
(주)명성건축사사무소	신상헌	건축설계업	7월10일
(주)이앤에스텍	유봉환	히팅케이블, 열선 제조업	7월14일
흑색건강	정진욱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7월14일
(주)대박이앤씨	최지영	콘크리트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7월15일
용인축산업협동조합	최재학	예금, 대출 등 협동조합	7월15일
정일산업(주)	박상만	건축폐기물처리업	7월15일
(주)넥스틴바이오사이언스	이주한	주축이동형CNC자동선반, 6축자동선반 제조업	7월18일
(주)트리플코어스테크놀로지	김익년	기체 여과기 제조업	7월18일
(주)태종에프디	구성희	냉동즉석조식식품 제조업	7월 23일
(주)이마트 동백점	한채양	대형 종합 소매업	7월 27일
(학)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영욱	자연,인문,사회,공학 연구개발 산학협력단	7월 28일
(주)성원로지스	최영철	화물자동차 운송업	7월 28일
유한건설(주)	배수평	철근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7월 28일
(주)유림	양승림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7월 30일
용인인쇄공작소	박정민	종합인쇄업	7월 31일

회사명	대표자	주요생산품목	설립일자
기업은행 용인지점	장태호	은행업	8월 1일
(주)도루코 용인공장	홍건희/곽희석	면도기, 칼 등 제조업	8월 1일
동원물류(주)	신경용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8월 1일
(주)미진시스템	정대경/정상건	동력식 수지공구 제조업	8월 1일
(주)삼보엔지니어링	삼규일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8월 1일
(주)솔리렉스	이종성	그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8월 1일
(주)한영건설	박성인/박한수	토공사업	8월 2일
뉴경기관광(주)	이용성/이석호	골프장 운영업	8월 7일
(주)이마트 흥덕점	한채양	대형 종합 소매업	8월 7일
(주)썬유티바이오	김성윤	치과용 기기 제조업	8월 8일
에스씨케미칼(주)	이무형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물질 도매업	8월 9일
(주)플러stek스	문혁기	자수제품 및 자수용재료 제조업	8월 16일
코아건축사사무소(주)	김향숙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8월 18일
(주)영동아이앤디	전항식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 제조업	8월 19일
(주)동성그린	조용섭	비료 및 농약 도매업	8월 20일
(주)한세상사	임금동	PVC 필름 및 전사필름 제조업	8월 23일
(주)씨티케이	양승원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8월 27일
(주)이마트 수지점	한채양	대형 종합 소매업	8월 27일
(주)누비지오	김동훈	침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	9월 1일
(주)에코니티	장문석	액체 여과기 제조업	9월 1일
제이드이엔지(주)	김동균	기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9월 1일
주주푸드(주)	나보희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	9월 1일
(주)청백종합건설	이한성	사무 및 상업용 건물 건설업	9월 1일
(주)일신레저	이소미	골프장 운영업	9월 2일
(주)시에이치물류	차희경	일반창고업및물류업	9월 5일
에이피에스테크(주)	박상길	액체 여과기 제조업	9월 6일
(주)김치라인	임현혁	김치기계설비전문 제조업	9월 7일
(주)영도금속상사	차의주	날붙이(손톱깎이) 제조업	9월 7일
(주)소울	김정택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9월 9일
(주)이마트 죽전점	한채양	상품 종합 도매업	9월 9일
(주)블루스페이스샵	박호철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9월 10일
다운	박태광	인삼식품제조업	9월 11일
대안화학(주)	윤윤식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 제조업	9월 15일
에스지모빌리티(주)	김상준/이은희	택시 운송업	9월 15일
기흥관광개발(주)	이용성/이호섭	골프장 운영업	9월 17일
(주)아이솔	정달용	자동차부품제조업	9월 17일
(주)테스	주송일/이재호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9월 19일
(주)오성엔지니어링	장리동	산업용 냉장 및 냉동 장비 제조업	9월 20일
창흥산업(주)	정태오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9월 20일
(주)이노썬라	하조웅	기타 내화요업제품 제조업	9월 25일
(주)한국이엘앤코	김정태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9월 25일



코리아퀵로지스틱스(주) 🔍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은 코리아퀵을 섭니다.

운송에 가치를 더하다 코리아퀵

빠른 운송 플러스
비즈니스 성장 플러스
새로운 물류 서비스를 경험하세요.



고객센터
1577-8288

퀵·화물 접수 이렇게 간편할 수 있습니다!

전화 없이도 웹·앱으로 즉시 접수!

출발자·도착지만 입력하면 시가 최적운임 자동 계산
불필요한 통화 없이 한 번의 클릭으로 배차 완료
카카오톡 알림으로 실시간 진행 상황 확인

접수부터 배차, 배송 완료까지 실시간 알림 제공

기사님의 위치 & 도착 예정 시간 현눈에 확인
(실시간 위치 트래커 기능)

기업 맞춤형 간편 접수 시스템!

전화·이메일·카톡 접수 모두 지원
원하는 방식으로 접수 가능
카카오톡 알림으로 실시간 진행 상황 확인



메밀꽃 필 무렵
봉평촌

산악지대 깊은 골짜기에서
자연의 은사를 받아
산악농부들이 최상의 품질의
메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국내산 메밀

오방지영물

五 · 方 · 之 · 靈 · 物

황근(노란뿌리), 홍경(붉은줄기),
청엽(푸른 잎), 백화(하얀 꽃), 흑실(검은 열매)

메밀은 옛부터 오색을 모두 갖춘 귀한 작물로 여겼습니다.

메밀꽃 필 무렵 봉평촌

그 가치를 지켜가겠습니다.

메밀꽃 필 무렵

봉평촌 검색
www.bongpyung.com



(주)봉평농원

본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갈월로 88 T 031-323-0052
공장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진동길 18-10 T 033-333-8942

용인특례시, 세종포천고속도로 (가칭)동용인IC 설치 위한 도로연결허가 신청

국도 42호선·국제물류4.0 진입도로 연계 물류 효율 증진 기대
“시민 교통편의 증진, 물류시설·지역기업 경쟁력 도움 될 것”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세종~포천고속도로에 (가칭)동용인IC 설치를 위한 국토교통부의 타당성 평가를 지난달 완료하고, 한국도로공사에 고속도로 연결을 위한 ‘도로와 다른 시설 연결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허가 신청은 ‘도로법’ 제52조에 따른 절차다. 세종~포천고속도로 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는 이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되며 승인 여부는 국토교통부가 결정한다.

시는 앞서 시행한 국토교통부의 타당성 평가에서 이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B/C)이 1.04로 나옴에 따라 동용인IC 설치의 경제성이 공식적으로 입증됐다고 보고 후속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는 2025년까지 모든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2028년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가칭)동용인 IC 설치에 처인구 고림동·양지면 일원에 조성 중인 용인 국제물류 4.0 물류단지의 교통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총 사업비 약 933억원(추정치)은 해당 물류단지 조성 사업자인 (주)용인증심이 전액 부담한다.

동용인IC는 국도42호선과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중로1-1호)를 통해 진출입할 수 있도록 설치될 예정이다. 국제물류4.0 진입도로와 직접 연계돼 물류 효율을 높이고 인근 기업 관계자들과 시민들의 고속도로 이용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상일 시장은 “세종~포천고속도로 개통으로 용인과 서울, 포천, 하남 등 주요 지역 간 접근성이 크



게 향상됐고, 향후 세종까지 가는 교통도 편리해진다”며 “이미 개통된 모현읍의 북용인IC에 이어 올해말 원삼면의 남용인IC가 열리게 되면 포천~세종 고속도로의 이용 편의는 한층 좋아지게 되는 데 2028년 이들 IC 사이에 동용인IC까지 개통되면 용인 국제물류4.0 물류단지 근로자나 인근 지역 시민들은 물론이고 시청을 포함한 용인 중심지역과 이 동읍에 조성될 반도체 특화 신도시에 살게 될 시민들, 남사·이동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등에서 일할 근로자 등도 큰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시민프로축구단, 프로연맹 실질적 창단 승인

K리그2 선수 선발, 구단 구성, 연맹 등록 등 창단 준비
김진형 단장, 이동국 테크니컬 디렉터, 최윤겸 감독 선임

한국프로축구연맹 이사회는 용인시가 제출한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 (가칭 용인FC)’ 창단 신청을 이사회에서 ‘승인’함으로써, 용인시는 K리그2 무대 진입을 위한 실질적인 창단 승인을 받았다.

이로써 용인FC는 선수 선발, 구단 조직 구성, 연맹 등록 등 모든 창단 준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실질적 승인 절차로, 형식적인 절차만 남겨둔 상태다. 정식 최종 승인은 2026시즌 개막 전, 내년 1월 연맹 총회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나, 이는 통상적인 형식 절차에 해당하며 가승인을 받은 팀은 사실상 프로 구단으로 인정받는다.

용인시는 수원, 화성, 성남, 안양, 부천, 안산, 김포와 함께 수도권 축구의 핵심 도시로 도약하게 되었으며, 100만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프로축구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이번 창단은 단순한 스포츠팀의 출범을 넘어, 용인시가 오랜 기간 준비해온 도시 전략과 시민 통합, 지역 문화 활성화가 응축된 역사적 이정표다. 2025년 4월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며 법적 기반이 마련됐고, 25년 전통의 용인시축구센터 철학과 인프라를 계승해 빠르게 프로화를 추진해왔다.



이상일 구단주는 연맹의 가승인 발표 직후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은 용인의 역사와 미래가 함께하는 구단이 될 것”이라며, “창단을 승인해준 한국프로축구연맹에 깊이 감사드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명문 구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프로축구연맹도 “용인시의 튼튼한 유소년 축구 인프라, 강력한 행정적 의지, 그리고 시민사회의 열정적 지지가 승인 결정의 핵심 배경이었다”고 평가하며, 대한민국 프로축구의 열기를 한층 끌어올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용인FC는 김진형 단장, 이동국 테크니컬 디렉터, 최윤겸 감독을 주축으로 구단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홍보·마케팅 전략, 선수단 구성·운영 계획 등 K리그2 참가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프리미엄 카페 문화를 선도하는 전문 식품유통 기업



경기도 용인특례시 처인구 모현읍 초부로 148번길. 용인휴양림 가까이 상부곡 마을에 자리 잡은 한 건물. 문을 열면 커피 원두 특유의 구수한 향과 달콤한 파우더 냄새가 어우러져 방문객을 반긴다. 이곳이 바로 20여 년간 카페 문화의 변화를 이끌어 온 (주)베오베 본사 겸 생산 공장이다.

베오베(www.beobe.kr)의 하루는 이른 아침 원재료 검수로 시작된다. 전 세계 각지에서 수입된 생두와 곡물, 과일 농축액, 각종 부재료가 꼼꼼하게 확인된 뒤, 세심한 레시피와 자동화 설비를 거쳐 다양한 제품으로 탄생한다. 그리고 전국 카페와 해외 바이어에게 전달되어, 한 잔의 음료로 소비자의 하루에 작은 여유와 즐거움을 더한다.

“좋은 재료에서 최고의 맛이 나온다”

베오베의 경영 철학은 단순하다. “좋은 재료에서 최고의 맛이 나온다.” 창업 초기부터 이어져 온 이 문장은 베오베가 지켜온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원재료의 산지, 품질, 안전성을 꼼꼼히 검증하는 과

정은 타협이 없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베오베는 HACCP, ISO 22000, FSSC 22000 등 국제 식품안전 인증을 취득했다. 각 인증은 단순한 ‘명패’가 아니라, 전 세계 어디서도 통할 수 있는 생산·관리 시스템을 갖췄다는 증거다. 신성태 대표이사는 “소비자가 우리 제품을 마시며 안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안전과 품질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고 강조했다.

베오베는 신성태·신지예 두 대표가 함께 이끌고 있다. 신성태 대표는 제조·품질관리·공정 시스템 등 제품 생산의 모든 과정을 총괄하며, 신지예 대표는 브랜딩·마케팅·디자인 전략을 담당한다. 두 대표는 역할은 다르지만, 목표는 같다. 바로 대한민국의 올바른 커피 문화를 정착시키고, 이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것이다.



신성태 대표이사
(주)베오베

도약의 발판 용인에서 글로벌 브랜드로

회사 설립은 신성태(63) 대표이사로부터 시작됐다. 젊은 시절 무역회사에서 수출입 업무를 담당했던 그는 커피문화의 트렌드 변화를 누구보다 먼저 감지했다. 초기에는 유통업으로 시작했다. 그러다가 고객사의 요구에 맞는 샘플이나 제품을 제대로 공급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느끼고 직접 제조 공장을 설립하게 되었다. 이는 단가 조정의 유통성과 R&D를 통한 신제품 개발의 필요성 때문이기도 했다. 명진통상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한 베오베의 창업 스토리이다.

수도권역 곳곳을 옮겨다니던 회사가 완전히 질적 전환을 하게 된 것은 용인특례시 모현읍 초부리, 현재 자리를 잡으면서부터다. 2015년, 사옥과 공장에 이어 물류센터를 신축하며 ‘베오베(BEOBE)’라는 새 이름으로 재도약을 선언했다. 베오베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Best of Best)’ 즉 ‘최고 가운데 최고’라는 뜻이다. 같은 해 농축에이드 시럽을 처음으로 런

칭했고, 로스팅 공장을 본격 가동했다. 2017년에는 HACCP 인증을 받은 커피·파우더 공장을 운영하며 제품 라인업을 프라페, 티 파우더 등으로 확대했다. 사내 연구개발실을 설립해 OEM 제품 개발, 신제품 기획, 품질 개선에 속도를 냈다.

2019년은 베오베의 전환점이었다. 베트남 카페쇼에 참가하며 첫 해외 전시를 치렀고, 이를 계기로 동남아시아 바이어와의 거래가 시작됐다. 같은 해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받으며 기술 혁신 기업으로서의 면모를 갖췄고, 경기도 수출 프론티어 기업에 선정됐다. 2020년 이후에도 성장은 계속됐다. 새싹보리곡물라떼, 아이스티 시리즈 등 건강 트렌드와 카페 시장의 니즈를 반영한 제품이 잇달아 출시됐다.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해 자동포장 로터리, 1톤 리본 믹서, 더블콘 믹서 등 첨단 설비를 도입했다. 2022년에는 ISO 22000:2018, FSSC 22000, 이노비즈, 벤처기업 인증을 획득하며 품질과 기술 경쟁력을 확고히 했다.

대형 로스팅기 2대를 포함한 설비를 갖추고 직접 원두 로스팅도 진행하고 있다.



100여 종이 넘는 제품 포트폴리오

베오베의 강점 중 하나는 폭넓은 제품군이다. 베오베는 커피 원재료와 부재료(파우더, 스무디 등) 모두를 가공하며 관련 제품을 취급하고 있다. 매장에서 사용되는 요거트, 녹차, 초콜릿, 쿠키 등 매우 다양한 종류의 파우더를 자체적으로 제조하고 있다. 팔라메, 오곡, 단호박 등 곡물 베이스부터 리얼 초코, 민트, 녹차라떼, 요거트, 밀크쉐이크, 프라페, 시나몬, 아이스티, 에이드까지 50여 종에 달한다.

특히 오곡 파우더는 12가지 곡물이 들어간 제품으로, 과거 맥도날드에 오곡 셰이크용으로 납품하던 것에서 탄생했다. 다른 업체들이 따라오기 힘든 베오베의 대표 제품이자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리는 품목 중 하나이다. 밀크 셰이크 역시 모든 음료의 베이스로 사용될 수 있는 제품으로, 오곡 파우더와 함께 매출이 높은 주력 품목이다. 액상 제품은 위탁 생산하고 있다. 블루베리·딸기·망고 스무디, 레몬·자몽·청포도 농축에이드, 카라멜·다크초코 소스, 흑임자 베이스 등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커피 원두는 클래식·골드·바이올렛 블렌드, 에티오피아 모모라 구지 G1 등 스페셜티 싱글 원두가 있다. 각 브랜드는 바디감·산미·향미의 균형을 고려한 자체 로스팅 프로파일을 적용한다. 이를 위해 대형 로스팅기 2대를 포함한 설비를 갖추고 직접 원두 로스팅도 진행하고 있다. 소스펌프, 시럽펌프 등 카페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소모품 등 기타 부자재 공급도 베오베의 사업영역이다.

신뢰와 협업의 네트워크로 세계시장까지

제품 개발에는 항상 ‘맛의 완성도’와 ‘운영 효율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이 적용된다. 소비자에게는 맛과 품질을, 카페 운영자에게는 안정적 공급과 경제성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베오베는 OEM 생산에도 강점을 갖고 있다. 상담·샘플 개발·계약·생산·품질검사·출고에 이르는 전 과정을 자체 공장에서 진행하며, 고객이 원하는 맛, 디자인, 패키지까지 완벽하게 구현한다. OEM 파트너에는 국내 프랜차이즈와 해외 카페 브랜드가 다수 포함돼 있다. 킴포즈 커피, 롯데리아, 투썸플레이스, 메가커피와 같은 대형 쇼핑몰 업체 등 주로 B2B(기업 간 거래) 방식으로 납품하고 있다.

베오베의 거래처는 다양하다. 국내 대형 프랜차이즈, 개인 카페, 식품·유통기업, 호텔·리조트까지 폭넓다.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와의 협업 제품은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었으며, 최근에는 하이브파트너스와 협약을 맺고 디지털 마케팅과 브랜딩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베오베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카타르, 일본 등으로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 시장에서는 현지인의 입맛에 맞춘 커피 파우더와 스무디 베이스가 호평을 받으며 판매량이 꾸준히 늘고 있다. 중동 시장에서는 고품질 원두와 농축에이드가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녹차와 곡물 라떼류 제품이 강세다.

정상을 향한 ‘베오베’의 꿈과 비전

(주)베오베는 지역사회와의 연대도 중요하게 바라본다. 모현읍기업인협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커피 관련 협회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그럼에도 아쉬움은 있다. 외국인 근로자와 교통 문제로 인한 인력 수급의 어려움 때문에 기숙사도 운영하고 있지만 사세 확장에 걸림돌은 규제다. 자연녹지 지역 및 경안천 수계 권역에 위치하여 건폐율 및 용적률 규제가 있어 증축이나 시설 확장에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혁신을 통한 성장엔진은 멈출 줄 모른다. 2025년 연 매출 규모 160억 원 정도로 짧은 기간 안에 스타트업으로서 큰 성장을 이룬 (주)베오베는 연구개발 투자에 진심이다. 30여 명 안팎의 직원 가운데 R&D(연구 개발) 인력이 5명이다. 제품 성격 상 생산 시설 및 위생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회사 구성구석이 깔끔하고 전면엔 잔디 광장이 조성되어 있다.

이미 내수시장에서의 입지를 탄탄히 다진 베오베는 새로운 미래비전 전략 중 하나로 해외 시장에

대한 도전을 계속하고 있다. 국제적인 식품 안전 기준 및 인증 획득도 그 중 하나의 과정이다. FDA 등록을 완료하여 미국 내 식품 제조/가공, 포장, 보관 시설로 등록이 되었다. 식품 회사를 위한 특화된 품질환경 경영 시스템인 ISO 22000, 그리고 국제적인 유통 브랜드 및 미국 코스트코 등 대형 글로벌 업체들이 요구하는 FSSC 22000 등을 보유하고 있다. 향후 수출 비중과 교역국 확대를 겨냥해 할랄(HALAL) 인증도 추진하고 있다. 2023년부터 미생물 실험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자체 실험실 운영을 통해 주기적인 검사로 제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20여 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품 라인업을 구축해 자체 생산과 유통시장에 큰손이 된 (주)베오베. 엄격한 품질 관리를 바탕으로 OEM 생산까지 담당하며 카페 시장의 트렌드를 선도하는 ‘프리미엄 카페 문화 플랫폼 기업. 신성태, 신지예 부부가 공동대표로 이끄는 이 회사가 그 이름의 뜻처럼 늘 정상에서 달리길 응원한다.



회사 전경 : 사옥과 공장, 물류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주)DY종합건설 - 공간을 짓고, 미래를 설계하는 기업



21세기 초일류 건설 및 신재생에너지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주)DY종합건설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 본사를 중심으로, 건축공사, 주택건설, 아파트 재건축, 토목공사, 대지조성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종합건설 역량을 강화해가고 있습니다. 창립 이래 오직 ‘고객 만족’이라는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으며, 우수한 인재 확보와 끊임없는 기술 개발, 철저한 사후관리로 차별화된 건설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특히 DY종합건설은 미래를 준비하는 기업으로서, 신재생에너지 기반 사업과 스마트 그리드 구축, 해외시장 진출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펼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세계 무대에서 대한민국 건설 산업의 위상을 높이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기술과 환경, 사람을 아우르는 혁신적 접근으로, 단순한 시공을 넘어 ‘지속 가능한 공간 창조’라는 철학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삶의 품격을 높이는 프리미엄 아파트 브랜드 ‘올리아누’를 새롭게 런칭하여, 생동감 있는 커뮤니티, 주거 만족감, 정서적 안정을 모두 아우르



는 프리미엄 주거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디자인과 기능, 편의성과 지속 가능성을 겸비한 올리아누는 고객과 함께 호흡하며, 삶의 질을 한층 더 끌어올리는 주거문화의 새 기준이 될 것입니다.

DY종합건설은 다채로운 주거용 및 비주거용 시공 실적을 통해 그 기술력을 입증해왔습니다. 골프장클럽하우스, 석촌동 근린생활시설, 동천동 도시형 생활주택, 평택 포승읍 물류창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 및 서울 이화동 등지의 다세대·근린시설, 춘천 송암동 노유자시설, 서초동 리모델링 등 전국 각지의 프로젝트에서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는 결과를 제공했습니다.

앞으로도 DY종합건설은 친환경 자재 사용, 에너지 효율 극대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설계를 통해 미래 건축의 기준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변화하는 건설 환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혁신하며, 기술과 디자인, 안전과 지속 가능성 모두를 갖춘 토탈 종합건설사로 고객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공간의 가치를 높이고, 삶의 품격을 완성하는 이름 - 바로 (주)DY종합건설입니다.

가구 특화 통합물류 서비스 혁신으로 업계 최고 권위상 획득 바로스, '2025 한국로지스틱스대상' 풀필먼트 부문 대상 수상

2025년 6월 2일 - 퍼시스그룹의 가구 전문 물류 서비스 기업 바로스(BAROS)가 '2025 한국로지스틱스대상'에서 풀필먼트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로지스틱스학회가 주최하는 이 상은 국내 물류 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기업 및 단체를 선정해 수여하는 업계 최고 권위의 상이다. 시상식은 지난 5월 30일 제주대학교에서 열렸다.

바로스는 사내 풀필먼트개발팀이 직접 설계·고도화한 IT 기반 통합 플랫폼을 통해 중소 가구사의 물류 고민을 해결한 혁신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 상을 수상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가구 시장 성장과 함께 전문 풀필먼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바로스는 국내 유일의 설치 기반 풀필먼트 전문 브랜드 '레터스(LETUS)' 론칭을 통해 업계 표준을 새롭게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바로스는 2021년 물류DT개발팀 신설을 통해 고객사 전용 주문관리시스템(OMS), AI 기반 자동 배차 시스템(Scheduling), 배송기사 전용 모바일 CM, 미들마일 전용 TM 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설치물류 업계 최초로 완전 통합 디지털 플랫폼을 구현했다. 특히 화주사의 다양한 오픈마켓의 주문정보를 자동 수집·처리하는 시스템과 AI 솔루션 기반 자동 배차 시스템은 중소 가구 기업들이 기존에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복잡한 물류 업무를 윈스톱으로 자동화해 운영 효율성 혁신에 성공했다.

바로스는 1997년 설립 이래 퍼시스, 일룸, 시디즈, 데스커 등 퍼시스그룹 계열사의 가구 배송·설치를 전담하며 운영 노하우와 IT 인프라를 축적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2023년부터 외부 고객사를 위한 제3자 물류(3PL) 풀필먼트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2024년에는 전문 브랜드 '레터스'를 공식 론칭했다. 이러한 기술력과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바로스는 가시적인 사업 성과를 거두고 있다.

바로스는 전국 23,500평 규모의 물류 거점과 800여 개 시공팀 인프라를 기반으로 일 평균 약 7,000건의 설치 배송을 처리하며, 허먼밀러, 듀오백, 신세계 까사, 네오스코리아 등 19개 브랜드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24년 글로벌 브랜드 이케아의 전국 배송·설치 협력사로 선정되며 글로벌 수준의 물류 역량을 입증했다.

바로스는 단순한 물류 대행을 넘어 생성형 AI 기반 24시간 챗봇 서비스, 박스 사양 개선, 입출고 방식 최적화 등 물류 컨설팅까지 제공하는 종합 솔루션을 통해 설치물류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있다. 향후에는 차세대 SaaS형 WMS 개발, 고객사 전용 모바일 CM 고도화, 생성형 AI 상담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풀필먼트 기술 혁신을 지속할 계획이다.

식품용 소스/파우더 제조 전문기업, 주식회사 소울입니다.

B2B 소스 및 파우더 제조 전문기업 '주식회사 소울(SOUL Co., Ltd.)'이 외식업체와 식품기업의 다양한 레시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소스 및 파우더 생산을 통해 시장에서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 (주)소울은 고객이 원하는 맛, 용도, 용량에 최적화된 제품을 설계·개발·생산하는 맞춤형 제조 시스템을 기반으로, 대형 프랜차이즈부터 개인 브랜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고객사의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테스트부터 대량 양산까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주)소울의 주력 제품군은 한식, 양식, 중식, 동남아식 등 다양한 메뉴에 적용 가능한 소스와 조미 파우더, 음료 베이스를 포함한다. 떡볶이, 불고기, 파스타, 돈코츠 라멘, 분짜 등 트렌디한 메뉴에 적합한 소스를 자체 개발하거나, 고객이 보유한 레시피를 기반으로 제품화하는 레시피 커스터마이징 역량이 큰 강점으로 꼽힌다.

특히 (주)소울은 정형화된 제품을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아닌, 고객의 레시피를 그대로 구현하는 생산 파트너를 지향하며, 1:1 맞춤 상담을 통해 기획 단계부터 공동 개발에 참여한다. 실제 고객의 브랜드 콘셉트, 가격대, 조리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배합과 포장 단위를 제안하고, 소량

또한 로터리 충전기를 포함한 최신 설비 도입으로 자동화된 생산 라인을 운영 중이며, 소포장 제품 생산도 안정적으로 가능하다. 이를 통해 날개 사용이 많은 업장, 개인화된 PB 상품, 온라인 판매용 제품 등 다양한 소형 패키징 수요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주)소울 김정택 대표는 “우리의 경쟁력은 단순히 제품을 ‘잘 만드는 기술’뿐만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함께 기획하고 구현하는 역량에 있다”며, “앞으로도 외식 산업과 유통 시장의 다변화된 니즈에 발맞춰 차별화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것”고 밝혔다.

산업현장의 필수템, 솔리렉스‘혹서기 온열질환 대응 에코쿨링케어’, ‘근골격계 질환 예방 보호보대’...현장 근로자 건강 보호에 앞장

(주)솔리렉스는 산업안전·건설안전·화학물질관리·전기·소방 등 전방위적인 안전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문 기업으로, 각 산업현장에 특화된 개인보호구 및 스마트 안전장비를 공급, 단순한 제품 유통을 넘어 현장 맞춤형 솔루션 제안과 사후관리까지 아우르는 토탈서비스를 통해 고객 신뢰를 쌓고 있는 바 산업현장과 일상 속 쿨링 혁신을 제시하고 있다.

솔리렉스의 ‘에코쿨링케어’는 PCM 냉각 기술, 증발식, 공기순환형, 반도체 열전소자 등 다양한 방식의 쿨링 기술을 제품군별로 접목한 것이 특징이며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한 총체적 쿨링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대표 제품인 쿨링조끼(ecc.V / Smart)는 독일산 Organic PCM을 사용하며, 저가형 PCM 제품을 사용하는 차별화된 제품으로 목과 어깨, 머리를 위한 쿨링 넥밴드(ecc.NB)와 스카프(ecc.CS), 헤드팩(ecc.H), 이너캡(ecc.IC), 보냉 파우치(ecc.P)가 있으며 더불어 별도의 전력없이 쿨링이 가능한 증발식 쿨링조끼(ECC-DRY3P)와 건식, 친환경 베스트(INUEQ-DRY®, ecc.H20), 아이스팩을 활용한 물순환 조끼(ecc.WV, WV2), 쿨링팬이 적용된 공조식 조끼(ecc.WF, WFJ 시리즈), 반도체 열전소자 조끼(ecc.PV-4, PV-8), 크린룸용 쿨링 조끼(ecc.CW), 안전모 쿨링가드(ecc.HG)가 있다.

이와 함께 산업현장의 또 다른 주요 위험요소인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웨어러블 보호대 제품군도 출시하며 근로자 건강 보호의 토탈 솔루션을



완성해가고 있다. EXOS 시리즈는 척추 중심 자세보조기술을 기반으로 허리와 요추에 집중된 부담을 분산, 착용자가 몸을 숙일 때 고탄성 벨트가 자동으로 수축·팽창하면서 근육의 과부하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며 반복적인 물건 운반 작업이나 장시간 선 자세를 요하는 업무에서 작업자의 근력을 보완하여 피로 누적과 부상 위험을 줄여주는 기능성 작업보조 근력슈트도 제안하여 다양한 업무 환경에서 근로자의 허리와 척추를 보호하는 스마트 솔루션으로 활용하고 있다.

솔리렉스 관계자는 “온열질환과 근골격계 질환은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조치의 핵심 요소로 기업의 책임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단순한 복지 차원이 아닌, 기업의 안전관리 책임”이라며 “에코쿨링케어와 함께 근골격계 예방 보호대까지 제공함으로써 산업 현장의 ‘건강한 지속 가능성’을 구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친환경 종이컵 전문기업 바우피엔씨(주), 국내외 시장 동시 공략



친환경 종이컵 및 테이크아웃 용기 전문기업 바우피엔씨(주)(대표 성상웅)가 해외 수출 계약을 연이어 체결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다.

바우피엔씨는 종이컵, 아이스크림컵, 푸드 컨테이너 등 다양한 친환경 패키징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로, 다품종 소량 맞춤 제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자체 보유한 특허 기술인 △탄산음료 기포 억제 종이컵, △인쇄·롤러 일체형 제조장비는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꼽힌다.

최근 회사는 캐나다 현지 업체와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글로벌 브랜드인 KFC에 납품을 추진하는 등 국내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식품 안전 분야 국제 규격인 FSSC22000 인증을 준비하며 품질 관리와 안전성 강화를 통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바우피엔씨는 그동안 국내외 다양한 고객사에 맞춤형 제품을 공급하며 신뢰를 쌓아왔다. 친환경 트렌드가 확산되는 가운데, 플라스틱 대체재로서 종이컵과 테이크아웃 용기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도 회사 성장의 긍정적 요인이다.

성상웅 대표는 “바우피엔씨는 고객과 환경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친환경 패키징 솔루션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공회의소 온라인 복지몰

“돈 쓰는 법도 전략이다”...중소기업 직장인을 위한 실속 소비 팁

최근 고물가 기조가 지속되면서 소비자들은 단순히 '최저가'만을 좇기보다 '현명한 소비'를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중소기업 임직원들에게는 실질적인 가격 혜택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대기업 임직원들은 사내 복지포인트, 제휴물, 임직원 전용몰 등을 통해 이미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고 있지만, 대다수 중소기업에서는 이러한 복지 접근성이 여전히 낮은 것이 현실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임직원들이 현명한 소비를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증대됐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지역상공회의소 회원사 전용 복지몰'이 새로운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복지몰은 지역상공회의소에 소속된 회원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대기업에 비해 복지 인프라가 부족했던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가격 혜택과 폭넓은 복지 접근성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용인, 시흥, 충주, 울산, 함안, 밀양, 진주, 제주상공회의소 등이 운영 중인 회원사 전용 복지몰은 성공적인 운영 사례로 꼽히며, 중소기업 복지 향상과 임직원들의 현명한 소비를 지원하는 실질적인 대안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 복지몰은 삼성전자 제품을 중심으로 세라젼 등 신뢰도 높은 브랜드의 제품을 시중 판매가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폐쇄형 복지 플랫폼으로서, 해당 지역 상공회의소에 가입한 회원사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특히 가전제품이나 건강관리 제품처럼 고가의 품목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직원 복지 향상과 가계 부담 경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다. 8월말까지는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3만원 올리브영 기프트카드도 받을 수 있다.

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지역 중소기업 임직원들의 실질적인 비용 절약을 위한 방안으로 전용 복지몰의 강점을 설명했다. "단순히 인터넷 최저가 검색만으로는 알 수 없는 회원 전용 특가와 추가 사은품, 설치 및 AS 혜택 등 실속 있는 구성이 마련되어 있다"고 강조하며, "특히 요즘처럼 불확실한 시기에는 단순 가격 비교를 넘어, 복지몰이나 기업인 전용 혜택 앱 등을 활용해 더욱 체계적이고 유리한 소비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상공회의소는 앞으로도 다양한 브랜드와 제휴해 제품군을 확대하고, 회원사 맞춤형 복지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복지몰 이용을 희망하는 기업은 지역 상공회의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직접 문의를 통해 간단히 가입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웬떡마을,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 떡 문화의 새로운 미래를 열다

40년간 장인의 손맛을 이어온 전통 떡 기업 웬떡마을은 '전통의 현대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2021년부터 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을 통해 인공지능과 로봇 등 현대 과학기술을 도입하여, 전통적인 아날로그 방식의 한계를 극복했다. 이를 통해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을 갖추고 대량 생산 역량을 확보하며 기업으로서의 체계를 확고히 다지고 있다.



웬떡마을 이규봉 대표는 용인 600년 역사의 향토 음식인 '쭈구리단자'를 복원하는 데 성공하여, 2025년 3월 25일 용인시 특산품 5호(용인쭈구리단자)로 지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또한, 농촌진흥청의 특허기술을 이전받아 향당뇨 간편식 '웬떡호당 시리즈(밥, 죽, 떡, 가래떡, 바사삭)'를 개발하며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2025 강한 소상공인 육성사업’에 선발되어 기업가형 장수 소상공인으로 성장하고 있는 웬떡마을은 마켓컬리, 예술의전당 등 프리미엄 채널 입점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해외 바이어들과의 수출 협의를 시작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규봉 대표는 "5천 년 이어져 온 떡 문화가 후대까지 지속되기를 바란다"는 소망을 밝혔다. 이를 위해 떡 제조 기술과 고조리서 연구를 체계화하고, 떡 전문 교육기관 설립을 목표로 미래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또한, 용인시와 협력하여 취약계층 당뇨 환자에게 당뇨 간편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계획하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용인시 사회적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려 힘쓰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미래 세대의 젊은 장인들에게 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최적의 시스템에서 만든 맛있고 안전한 떡을 선보이며 수천 년 이어온 한국의 떡 문화가 계속 전파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되었다.

(주)조인엔터프라이즈



(주)조인엔터프라이즈는 1999년 설립 이래 소통, 혁신, 실행과 성취를 모토로 정형외과 외고정 치료재인 의료용 부목(Casting Tape & Splint) 제조 및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성실, 화합, 개선이라는 사훈 아래,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품질 향상을 통해 세계 정형외과 의료용품 시장을 선도하며, 50여 개국 이상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탄탄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당사는 폴리우레탄 수지를 기반으로 한 고강도 유리섬유 재질의 제품과 완전 소각이 가능한 폴리에스터 재질의 제품(Optima Cast, Optima Splint)을 제조·판매합니다. 자사 기술개발 연구소의 꾸준한 연구를 통해 제품의 강도, 경량화, 통풍성, 편안함 등 외고정 치료재에 필수적인 요소를 혁신적으로 개선하며, 기존의 무겁고 불편한 석고 깁스를 대체하는 작고 가벼운 부목을 개발했습니다.

또한, 모든 제품은 국제표준화 규격인 ISO 13485, CE, FDA 등록을 완료하여 신뢰성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수백만 개 이상의 의료용 부목을 생산하며, 국내 시장뿐 아니라 해외 5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뛰어난 품질 관리, 신속한 애로사항 해결, OEM 제품 제공을 통해 바이어와의 신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자사 기술개발 연구소의 기술 개발로 제품의 강도와 편안함을 향상시키며,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조인엔터프라이즈는 환자, 의사, 유통사, 제조사 모두가 만족하는 제품을 생산하며, 모든 파트너가 함께 승리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합니다. 지속 가능한 품질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정형외과 의료용 부목 시장의 선두주자로 유지하겠습니다. 동시에 항상 고객과 함께 성장하며, 더 나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파 제조업 ‘지지쇼파’, B2C 맞춤 소파 브랜드 ‘클리오네’로 유통시장 확대



지지쇼파는 국내 제조 기반의 소파 전문 기업으로, 오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프리미엄 소파를 제작·유통하고 있다.

유통 부문에서는 다수의 국내 유명 소파 브랜드와 협업하며 안정적인 거래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자사 소매 브랜드 ‘클리오네(CLIONE)’는 B2C 기반의 프리미엄 맞춤 소파 브랜드로, 각 가정의 거실에 꼭 맞는 맞춤형 프리미엄 소파를 선보인다.

클리오네는 EO 등급 친환경 목재, 프리미엄 패브릭, 천연 소 가죽 등 엄선된 소재와 체계적인 봉제·마감 공정을 통해 제작된다. 특히 고객의 라이프스타일과 공간에 맞춘 맞춤 제작 서비스를 통해 입주 가구, 신혼 가구 고객들에게 높은 만족을 주고 있다.



지지쇼파의 자사 소매 브랜드 ‘클리오네’는 단순히 소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일상을 위해 디자인 한다’는 철학을 담고 있다. 사용하는 순간의 편안함뿐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질리지 않는 디자인과 안전한 소재, 정직한 제작 과정을 통해 고객이 오래도록 신뢰할 수 있는 소파를 지향한다.

최근에는 ‘평택 AK 백화점’ 내 오픈을 통해 유통 시장을 한층 넓혔으며, 올해 안으로 추가 지점 한 곳을 더 확장하는 것이 목표이다.

지지쇼파는 앞으로도 제조·유통·소매를 아우르는 종합 소파 전문 브랜드로서 정직하고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한국에머슨(주), 제약바이오 자동화 솔루션 세미나 성료



글로벌 기술 및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 한국에머슨(대표이사 정재성)이 국내 제약 및 바이오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고객 세미나 ‘Life Sciences Innovation Spotlight Korea 2025’를 성황리에 마쳤다. 지난 12일 세라톤 그랜드 인천 호텔에서 진행된 이번 고객 세미나는 생명과학 분야의 혁신적인 변화를 이끄는 에머슨의 방향성과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소개하고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최신 자동화 기술과 디지털 혁신을 바탕으로 한 제품 포트폴리오 데모 전시와 사례 성과 발표를 통해 고객 중심의 혁신 전략을 강조했다.

발표 세션에서는 ▲DeltaV™ 분산 제어 시스템(DCS)을 통한 데이터 무결성 확보 및 배치 실행 최적화 방안 ▲Aspen Unscrambler™와 Process Pulse™를 활용한 실시간 공정 분석 기술(PAT) 및 품질 중심 설계(QbD) 구현 전략 ▲디지털 기술 기반의 기술 이전 및 제조 실행(MES) 통합 솔루션 ▲생산 병목 해소 및 자산 활용 극대화를 위한 DeltaV™ 실시간 스케줄링(RTS) ▲공정 중단을 예

방하는 AMS 자산 모니터 솔루션 등 산업 전 주기에 걸친 혁신 솔루션과 방향성을 제시했다.

주요 제약사 및 바이오 기업, 연구기관 관계자들은 인터랙티브 데모를 통해 에머슨의 솔루션을 직접 경험하며, 에머슨 전문가들과 함께 생명과학 산업의 주요 과제와 미래 방향성에 대해 인사이트를 나눴다. 특히 최근 강화되고 있는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을 비롯해, Pharma 4.0 도입을 통한 생산 고도화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류택완 한국에머슨 시스템·소프트웨어 사업부 본부장은 “이번 세미나는 생명과학 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위한 에머슨의 최첨단 자동화 솔루션과 전략을 공유하고, 고객분들의 통합 제어·운영 솔루션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에머슨의 시스템 전문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국내 기업들에게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며 변화하는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3분기 제조업 경기전망(BSI), 수출회복세에도 관세 영향으로 상승폭 제한

- 3분기 BSI '81', 전분기대비 2p 상승에도 16분기 연속 부정적.. 수출(87)보다 내수(79) 더욱 부진
- 반도체(109)·제약(109)·화장품(113) 개선 vs 철강(67)·자동차(76) 부진.. 관세부담, 수출회복세 따라 엇갈려
- 관광수요, 소비회복 기대감에 제주, 강원 '상승' vs. 철강·석유화학부진에 대경권, 동남권 '하락'
- 상의 "통상 불확실성 완화, 규제개선, 내수부양책 등 정부·국회가 뒷받침해 경제회복 모멘텀 확보해야"

반도체 등 수출 회복세와 새정부 경제정책 기대감에 지수가 소폭 상승했지만, 美 관세 압박, 중동 불안, 내수부진의 삼중고에 3분기 체감경기 상승폭이 제한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전국 제조업체 2,186개사를 대상으로 '2025년 3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전분기(79)대비

2p 상승한 '81'로 집계되면서 16분기 연속 기준치(100)를 밑돌았다. 부문별로는 수출(87), 내수(79) 모두 부진한 가운데, 건설경기 침체, 소비 위축 등으로 내수기업 전망이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반도체, 화장품 등 일부 산업의 수출 회복세에도 관세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경기

전망지수는 소폭 상승에 그쳤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89)에 비해 중견기업(77)과 중소기업(81)의 전망치가 상대적으로 낮게 집계됐다.

BSI는 지수가 100이상이면 해당 분기의 체감경기를 이전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본 기업이 많다는 의미이고, 100이하면 그 반대다.

반도체(109)·제약(109)·화장품(113) 개선 vs 철강(67)·자동차(76) 부진.. 관세부담, 수출회복세 따라 엇갈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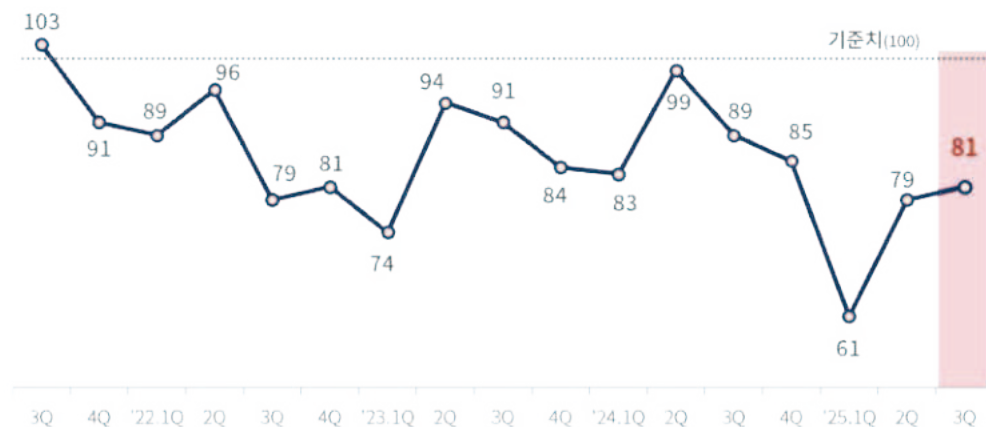
관세 부담과 수출 실적에 따라 업종별 체감경기 전망이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 예외품목에 해당하는 반도체(109), 제약(109) 업종은 긍정적 전망이 우세했으며, 특히 반도체는 전분기보다 22p 상승하며 1년 만에 기준치를 상회했다. 이는 AI산업 확산에 따른 고부가가치 반도체 수요 확대 등으로 수출이 증가하면서 체감경기 전망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화장품(113) 업종의 경우에는 관세영향에도 유럽, 중동 등으로 수출시장 다변화 전략을 이어가며 가장 높은 전망치를 기록했다. *25년 1~5월 화장품 수출액증감률: 對유럽 40.7%, 對중동 65.6%

미국 관세 적용대상인 철강, 자동차 업종은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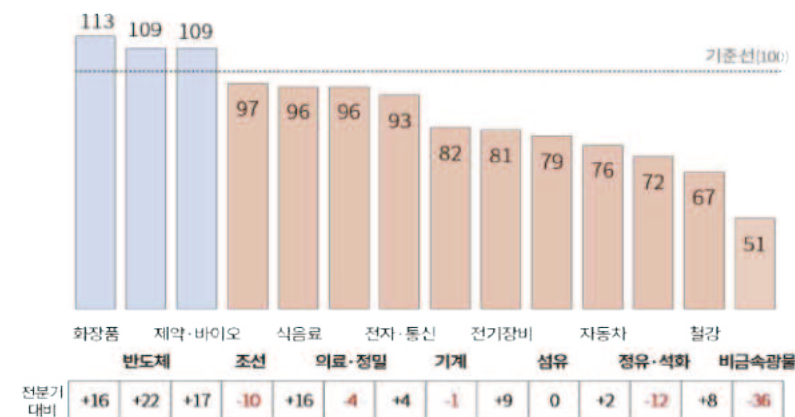
가 기준치를 크게 밑돌았다. 철강(67) 업종은 대미 수출 감소와 함께 우회수출로 중국·일본산 철강재의 국내유입이 늘어나면서 지수가 70 이하 수준에 머물렀다. 자동차(76) 업종 또한 관세 부담으로 대미 자동차 수출이 크게 감소하면서 부정적 전망이 우세했다. *25년 5월 對美수출액증감률: 철강 -16.3%, 자동차 -27.1%, 자동차부품 -5.8%

한편, 정유·석화 업종(72)은 산업의 구조적 침체 상황에서 유가변동성 확대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지며 경기전망이 크게 악화됐다. 비금속광물 업종(51) 또한 장기간 지속된 건설경기 침체 영향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림1> 대한상의 제조업 경기전망지수(BSI) 추이



<그림2> 2025년 3분기 주요 업종별 BSI 전망치



<표1> 업종별 수출실적

업종	'25.1~5월 누적 증감률	5월 증감률
반도체	+11.4	+21.2
화장품	+13.5	+9.3
의약품	+17.0	+14.1
선박	+12.1	+4.3
자동차	-2.5	-4.4
철강	-5.4	-12.4
석유화학	-10.8	-20.8

※ 관세청, 전년동기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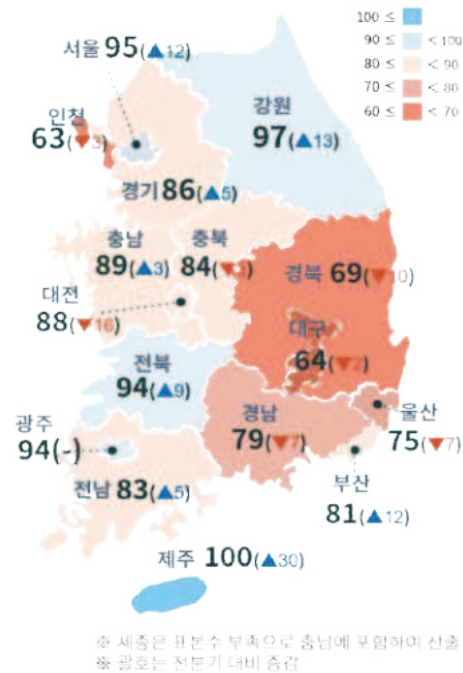
관광수요, 소비회복 기대감에 제주, 강원 '상승' vs. 철강·車·석유화학 부진에 대경권, 동남권 '하락'

지역별 체감경기 전망에도 관세 영향이 뚜렷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100)지역은 지역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반도체와 식음료 업황이 개선되며 지수가 전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강원(97) 지역도 여름철 관광수요와 소비심리 개선에 대한 기대감, 식음료업황 개선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지수가 선방했다. *소비자심리지수 : 4월(93.8) → 5월(101.8) → 6월(108.7)

반면 인천(63)은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기계장비 업종 부진과 자동차·부품 관세 영향으로 부정적 전망이 강했고, 대구(64)·경북(69) 지역의 경우 철강업계 부진과 섬유산업 침체로 지수가 60대에 머물렀다. 경남(79), 울산(75) 지역은 철강, 자동차 산업의 관세 부담과 석유화학 업황 악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부정적 전망이 강했다. 전남(83) 지역도 마찬가지로 석유화학 산업이 글로벌 수요위축과 공급과잉으로 침체되면서 호남권 중 지수가 가

장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 지역별 BSI의 경우, 10인 미만 제조업체를 제외하고 집계함에 따라 각 지역상의 BSI 수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그림3> 2025년 3분기 지역별 BS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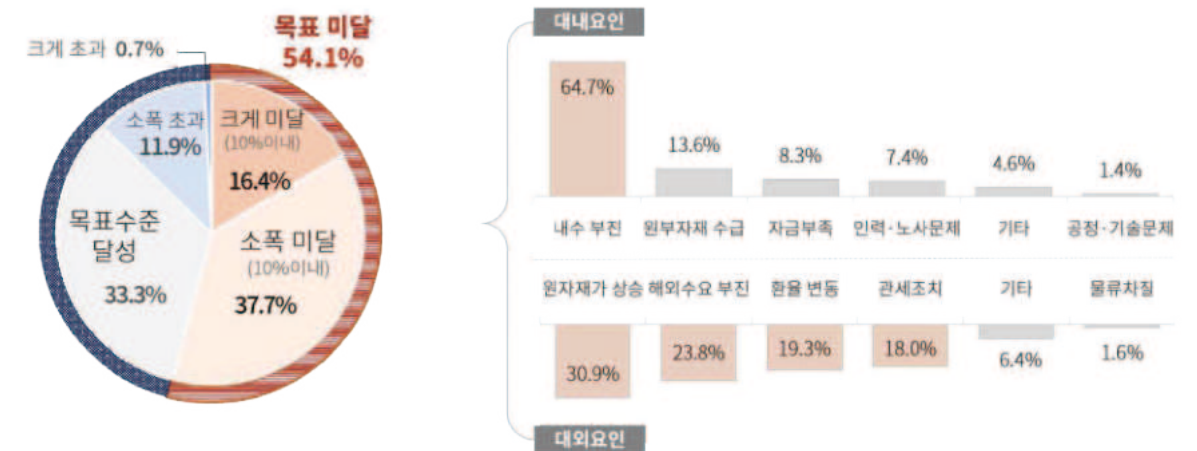


기업 54% 상반기 매출 '목표 미달'.. 원인은 '국내외 수요부진', '원자재가 상승', '환율', '관세' 영향

올해가 절반이 지난 시점에서 상반기 매출실적을 점검한 결과, 제조기업 54.1%가 매출 목표치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응답했다. 매출이 목표대비 10% 이상 미달이라고 예상한 기업은 16.4%이고, 10% 이내

소폭 미달에 응답한 기업은 37.7%에 달해 기업 절반 이상이 목표매출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목표치 달성'에 응답한 기업은 33.3%를 차지했다. <소폭 초과달성 11.9%, 크게 초과 달성 0.7%>

<그림4> 상반기 매출실적 목표치 달성여부 및 대내외 주요 리스크



반도체(109)·제약(109)·화장품(113) 개선 vs 철강(67)·자동차(76) 부진.. 관세부담, 수출회복세 따라 엇갈려

기업들은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에 영향을 미친 주요 리스크로 대내외인 중에서는 '내수 부진'(64.7%)을 가장 많이 지목했다. 반면, 대외 요인으로는 '원자재가 상승'(30.9%)이 가장 많았고, 이어'해외수요 부진'(23.8%), '환율 변동'(19.3%), '관세조치'(18.0%) 순으로 답변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됐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체감경기가 다소 개선됐으나, 관세부담으로 대미수출 감소가 현실화되는 등 기업 부담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새정부 경제정책 기대감이 내수심리에 긍정적 신호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가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하반기 경기회복

모멘텀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상 불확실성 완화, 규제·애로 개선과 함께 고효율 신제품 및 노후설비 교체 지원, 투자 촉진 인센티브 등 과감한 내수활성화 대책을 병행하여 민생경제와 기업심리 회복을 적극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조사 개요 >

- 조사 기간 : 2025. 5. 30(금) ~ 2025. 6. 13(금)
- 응답 기업 : 전국 제조업체 2,186개사
- BSI지수 산출방식

$$\left[\frac{\text{'호전예상'기업수} - \text{'악화예상'기업수}}{\text{응답기업수}} \right] \times 100 + 100$$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 02-2100-1696

2025년 7월 1일부터 'DSR이 적용되는 전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3단계 스트레스DSR (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시행됩니다.

*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 부과

※ (스트레스 DSR 제도)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여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

① 3단계 스트레스 DSR의 스트레스 금리는 1.50%가 적용됩니다.
- 다만, '지방(서울·경기·인천 지역 제외)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금리인 0.75%를 올해 12월 말까지 적용할 예정입니다.

②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을 현행보다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 주담대 평균 상환기간, 만기 중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기간의 비중 등을 고려

※ [변동형] 스트레스 금리 100% 적용
[혼합형] 만기비중 대비 고정금리 기간 비중에 따라 0~80%까지 차등 적용
[주기형] 만기비중 대비 금리변동주기 비중에 따라 0~40%까지 차등 적용

③ 2025년 6월 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됩니다.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의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가계부채 관리 시스템이 확고하게 구축되었습니다.

▶ 이를 통해, 차주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금리변동에 따라 급격하게 변화하지 않고 적정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규 상장법인 등의 공시의무가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 02-2100-2688

일반주주·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업공시 의무가 강화됩니다.

▶ 신규 상장법인 등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 등으로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공시)의무가 발생한 법인은 기존 사업보고서 공시에 더하여 직전 분기 또는 반기 보고서*도 공시**해야 합니다.

* 사업보고서(1년단위), 분기·반기보고서 : 회사의 재무, 임원, 주주 등에 관한 사항 기재

**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정기 제출기간 중에 제출의무 발생 시 그 제출기한까지)

※ 신규 상장 과정에서 제시된 예상 실적에 현저히 못 미치는 실적(상장 직전 분기)이 나온 사실이 상장 후 3개월 뒤에 드러나 주가가 하락한 사례 등 예방 가능

▶ 일반주주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 등은 사모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 발행 결정을 한 다음날과 납입기일의 1주 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해야 합니다.

* 주요사항보고서 : 상장법인 등에 자본시장법(§161)이 규정한 사항 발생시 관련 내용 기재

※ 기존에는 납입기일 직전에 공시가 가능하여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충분한 시간이 없어 주주가 상법상 가능한 발행중단 청구를 하기 어려운 경우 발생

▶ 5%를* 위반시 부과한도 10배 상향 등 과징금도 강화됩니다.

* 주식 등을 대량보유(주식등의 총수의 5%이상)하게 된 경우 등에 보유상황·목적 등을 공시

개정 근로기준법(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044-202-7529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개정 근로기준법)」(2024. 10. 22. 공포)이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 ▶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게 됩니다.
- 동시에 이들은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에서도 제한을 받으며,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 체불로 인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는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100분의 20)는 재직 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되며, 명백한 고의로 인한 체불 등의 경우 피해 근로자는 법원에 임금 등의 3배 이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임금체불은 중대한 경제적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어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이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근로자 자발적 퇴사 시에도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전액 지급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7

2025년 7월부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 제도 사용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급합니다.

- ▶ 기존에는 육아휴직 등 종료 후 6개월 경과 전에 근로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 등 지원금 잔여분 50%를 수령할 수 없었습니다.
- ▶ 이번 개정을 통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잔여분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육아휴직 등 지원금 제도 개편내용

구분	현행 지급방식	개선 지급방식
육아휴직지원금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자발적 퇴사시 사후지급금(50%) 미지급	자발적 퇴사시에도 사후지급금(50%) 지급

강화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기준 시행

환경부 생활하수과 ☎ 044-201-7023

수질개선 및 물환경 보전을 위해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잘 처리할 수 있도록 2025년 12월 11일부터 강화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기준이 시행됩니다.

- ▶ 침전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8시간 이상 저류 가능한 용량의 침전분리조를 2실 이상으로 구분하여 직렬로 설치해야 하며,
- ▶ 생물반응조의 오수 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용적부하량은 0.3kg/m³·일 이하로 해야 합니다.
- ▶ 또한, 시설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는 시설물의 상부 또는 측면을 다양한 재료로 보강하던 것을 콘크리트 재료로 보강하도록 기준이 강화됩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규정 시행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 044-201-6783

화학물질 신고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규정이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 ▶ 신고물질의 적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신고자료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여 신고자에게 검토결과를 알려주고, 필요시 정부에서 유해성 정보를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 ▶ 또한, 화학물질의 정보공개 범위를 단계별로 구체화하여, 등록 물질뿐만 아니라 신고물질에 대한 정보까지 공개하게 되며, 누구든지 공개된 정보보다 신뢰도가 높은 정보를 확보한 경우, 수정·보완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 이와 함께, 유해성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물질을 양도할 경우 양수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유해성이 확인될 때까지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관리하는 제도도 시행됩니다.
- ▶ 아울러, 기존 '유독물질' 정의가 삭제되고, 물질의 유해 특성에 따라 정의가 세분화*되어 위험도에 비례한 관리체계로 전환됩니다.

* 인체급성 유해성물질, 인체만성 유해성물질, 생태 유해성물질

이를 통해 소량 화학물질 신고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민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안보과 ☎ 044-203-4854

국가핵심기술 보호체계를 대폭 개선하고, 위반시 벌칙 강화 및 기업 지원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2025년 7월 22일 시행 예정입니다.

- ▶ 개정법은 기술 보호 및 관리를 대폭 강화하여, ①기술 유출 우려가 크고 보호 필요성이 큰 경우 기업의 신청이 없더라도 국가가 직권으로 기업에게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하는 국가핵심기술 보유확인제를 신설하고, ②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에게 기술 및 기관에 대한 등록의무를 부여하도록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하며, ③불법 해외인수·합병에 대한 즉시 중지·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 명령을 하고 미이행 시 1일 1천만원 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한편, ④기술안보센터*를 지정하여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지원 및 정책업무 지원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 ▶ 또한, 벌칙규정을 강화하여, ①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시 벌금을 현행 최대 15억원에서 65억원으로 상향하고, ②처벌대상을 현행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여 유출된 기술이 해외에서 사용될 것을 알지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③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브로커의 경우에도 기술 침해행위로 처벌하도록 하는 한편, ④산업기술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경우 손해배상한도를 현행 3배에서 5배로 상향하였습니다.
- ▶ 기업지원 강화를 위해, ①일률적인 기술의 수출 승인절차를 수출유형에 따라 면제 또는 간소화하고, ②개별법에 따라 기술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산업기술확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등 기업 불편을 해소하고, ③기업의 보안시설의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매출 범위기준 상향 개편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제도과 ☎ 044-204-7576, 7454

기업 성장사다리 축진을 위해 중소기업 매출 범위기준을 10년만에 상향 개편합니다.

- ▶ 중소기업 매출기준을 최대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상향하면서 매출구간을 5개 구간에서 7개 구간으로 늘리고, 44개 업종 중 16개 업종의 매출상한을 현행에서 200~300억원 확대합니다.
- ▶ 또한, 소상공인 기준인 소기업 매출기준은 최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상향하여, 매출구간을 5개 구간에서 9개 구간으로 늘리고,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의 매출상한을 현행에서 5~20억원 확대합니다.

이로써, 전체 804만 中 上향 업종에 속하는 약 573만개 중소기업(중기업 6.3만개, 소기업 566.7만개)은 세제감면, 공공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에 대한 지속 수혜가 가능해집니다.

혁신제품 제도의 숨은 규제개선을 통해 혁신적 기술보유 기업 참여 지원

조달청 신성장조달총괄과 ☎ 042-724-6316

혁신기술만 있으면 공장과 설비를 가지고 있는 기업과 협업을 통해 혁신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협업 기업수를 1개사에서 최대 3개사로 확대하여 운영합니다.

- ▶ 기술력은 있으나 생산능력이 부족한 스타트업, R&D 기업들이 납품 여건 및 기업 상황에 맞춰 생산 기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들이 기술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SW 혁신기술이 여러 종류의 제품과 융합하여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융복합 SW 혁신제품 인정 범위가 확대됩니다.

- ▶ SW 기술이 적용된 물품 종류마다 개별로 혁신제품을 지정받을 필요없이 기존 지정된 혁신제품에 규격만 추가하면 혁신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수요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겠습니다.

혁신제품 시범구매 기회를 확대합니다.

- ▶ 기존 시범구매 대상에서 배제된 단가계약 체결 제품에 대해서도 해외실증 시범구매 참여를 허용하고, 5천만원 이하 소액으로 시범구매한 제품은 추가 시범구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상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 무효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 044-200-4946

수급사업자에게 서면 등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을 전가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등의 부당한 특약은 전체 하도급계약 중 그 특약에 한정하여 무효가 됩니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2025. 10. 2.부터 시행)

- ▶ 구체적으로 「하도급법」 제3조의4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에 규정된 아래의 부당특약은 곧바로 무효가 되고,

1. 원사업자가 제3조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 그 밖에 하도급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약정은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한정하여 무효가 됩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원사업자가 최초 계약 시 또는 하도급거래 중간에 부당특약을 설정할 유인이 줄어 부당특약 자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 또한, 수급사업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입증 부담이 덜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활용할 수 있어 신속히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업무처리 절차 등 추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 044-202-8914, 8915

2025년 6월부터 산업재해조사표 서식을 개편 시행합니다.

- ▶ 산업재해조사표 서식에 업무 처리 흐름도를 추가하여 산업재해조사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 ▶ 또한, 재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란은 '생년월일'을 포함한 앞 7자리로 변경하였습니다.

인화성 물질 저장·취급설비 화재·폭발 예방조치 강화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 ☎ 044-202-8969

인화성 액체·가스를 저장·취급하는 화학설비의 화재·폭발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기준이 강화됩니다.

- ▶ 인화성 액체·가스 저장·취급설비에 외부로부터의 화염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기로 연결된 통기관에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를 설치해야 합니다.
- ▶ 또한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를 설치할 경우 한국산업 표준에서 정하는 화염방지장치 기준에 적합한 것을 설치하고, 항상 철저히 유지·보수해야 합니다.
- ▶ 화염방지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는 개정된(2022. 10. 18.)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부칙(제367호) 제7조에 따라 2025년 10월 17일까지 설치 완료하여야 합니다.

소부장법 관련 사업장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신속화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 ☎ 044-202-8969

반도체 등 소부장법* 관련 사업장에 대하여 공정안전보고서 우선심사 제도를 도입합니다.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 ▶ 반도체 공장 등 소부장법에 따른 핵심전력기술·공급망안정품목과 관련한 설비 보유 사업장의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 ▶ 해당 사업장에서 신청 시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우선심사를 실시합니다.

블록형단독주택 분양 소식

 광일토건환경

'용인 브리즈힐 더네이처'

본 분양물건은 용인상공회의소 회원사인 광일그룹에서 용인자연휴양림과 연계된 전원주택단지로 개발사업을 진행한 사업장으로 광일그룹은 “생활의 1%를 다문화가정과 함께”라는 슬로건으로 많은 사회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용인에서 자원 리사이클, 부동산개발, 건설, 운송 등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본사업은 총 57세대 규모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용 100평 내외 필지에 지상 4층(약 80평 규모)까지 건축 가능하며, 샘플하우스는 2025년 8월 중 공개 예정입니다. 광일그룹은 본사업의 토지분양을 전제로 진행하며 소비자께서 요청하면 건축공사까지 광일종합건설에서 성실히 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브리즈힐만의 프리미엄

- 북용인 IC 개통으로 반도체클러스터 및 판교, 분당 접근성이 뛰어난 입지여건
- 전세대 계단식 남향배치로 일조·조망이 우수하고 병커주차장 설치 가능
- 단지내 기반시설(상수도, 도시가스, 오·우수관 직결) 지중화 완비
-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최적화된 맞춤형 건축서비스 제공
- 단지조성 공사 및 필지분할 완료로 소유권이전(토지) 후 개별 건축 가능

용인상공회의소 회원사에 대한 혜택

- 최대 2,000만원 상당 특별혜택 제공
- 행사기간: ~ 2025년 9월 30일(금)

분양문의 : 031-338-9015

- <https://breezehillthenature.com>
- 현장(샘플하우스):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초부리 97번지